



## 국가 R&D 예산도 대기업에 집중 지원

대기업 국가R&D 사업 참여 비중 중소기업보다 52.3배 높고,  
국가R&D 예산지원은 중소기업보다 13.5배 많아

□ 민병주의원(새누리당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)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‘국가연구개발사업 기업 규모별 참여 현황’에 따르면,

- 2012년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기업은 전체 대기업 중 11% 수준인 반면, 중소기업의 경우 0.2% 수준임.
-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전체 기업 대비 비중은 대기업의 경우(평균 8.89%)가 중소기업의 경우(평균 0.17%)의 약 52.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.

\* <표1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규모별 전체 기업 대비 비중> 참조

<표1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 규모별 전체 기업 대비 비중 >

(단위 : 개)

구분	2008년	2009년	2010년	2011년	2012년	5년간 평균
대기업	7.60% (212/2,789)	8.78% (256/2,916)	8.58% (268/3,125)	9.40% (287/3,053)	10.90% (333/3,053)	8.89%
중소기업	0.17% (5,233/3,044,169)	0.17% (5,063/3,066,484)	0.16% (5,146/3,122,332)	0.16% (5,062/3,231,634)	0.20% (6,528/3,231,634)	0.17%

\* ( )안은 (참여 기업 수 / 규모별 총 기업 수)

\*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 계열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

\* 전 산업 기준 (1인 이상) 산업체 수 : 통계청 (2012년 산업체 수 불변 가정)

- 또한, 국가 R&D사업의 연구비 현황에서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수준을 비교해보면, 2012년 기준 대기업이 43.2억원인 반면, 중소기업은 3.2억원에 불과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약 13.5배나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.

\* <표2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현황> 참조

<표2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당 국가 연구비 현황 >

(단위 : 억원/개)

구분	2008	2009	2010	2011	2012
대기업	45.4억 (9,627/212)	51.5억 (13,183/256)	46.0억 (12,330/268)	48.3억 (13,861/287)	43.2억 (14,397/333)
중소기업	2.3억 (11,787/5,233)	3.0억 (15,002/5,063)	3.2억 (16,353/5,146)	3.7억 (18,469/5,062)	3.2억 (20,956/6,528)

\* ( )안은 (국가 연구비 지원 규모 / 참여 기업 수)

\*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 계열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

-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국가연구비 상위 10위는 총 18개 대기업이 독점하고 있음.

- 18개 기업은 두산계열 3사(두산DST, 두산인프라코어, 두산중공업), 삼성계열 4사(삼성SDS, 삼성전기, 삼성전자, 삼성테크윈), 현대계열 3사(현대로템,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), LG전자, LIG넥스원, SK에너지, 대우조선해양, 코오롱, 포스코, 한화, 효성임.

\* <표3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기업 중 국가연구비 상위 10개사(공기업 제외)> 참조

- 5년 간 연속으로 상위 10위에 오른 기업은 삼성SDS, 삼성전자, 한화, 현대자동차, 효성이며, 5년간 지원받은 누적 국가연구사업비가 가장 많은 기업은 한화(4,861억원), 현대자동차(2,560억원), 삼성SDS(2,426억원), LIG넥스원(2,265억원), 효성(1,353억원) 순임.

\* <표4.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대기업 지원 누적 현황> 참조

- 민병주 의원은 “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더불어 민간영역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(相生) 발전도 매우 중요하다” 고 강조하며,

- 또한, “민간영역에서 수행하는 국가 R&D 사업의 대기업 편중 현상은 장기적인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며, 국가 R&D 사업 수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참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” 고 지적함.

< 표3.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대기업 중 국가연구비 상위 10개사(공기업 제외) >

(단위 : 억원)

순위	2008		2009		2010		2011		2012	
	기업명	연구비	기업명	연구비	기업명	연구비	기업명	연구비	기업명	연구비
1	한화	1,850	한화	1,254	삼성SDS	587	한화	712	LIG넥스원	1,019
2	현대자동차	537	삼성SDS	846	현대자동차	551	현대자동차	490	한화	606
3	삼성SDS	519	LIG넥스원	514	한화	440	LIG넥스원	488	현대자동차	385
4	두산중공업	413	현대자동차	476	두산중공업	337	효성	333	포스코	379
5	LG전자	247	삼성전자	323	삼성전자	265	포스코	271	효성	332
6	삼성전자	206	두산중공업	277	LIG넥스원	242	두산중공업	253	두산DST	245
7	삼성테크윈	133	삼성테크윈	258	효성	232	대우조선해양	244	삼성SDS	241
8	삼성전기	123	두산인프라코어	221	SK에너지	219	LG전자	240	현대중공업	220
9	효성	121	현대로템	210	삼성테크윈	186	삼성전자	232	대우조선해양	219
10	코오롱	101	효성	181	포스코	167	삼성SDS	229	삼성전자	217

\*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 계열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산출

< 표4. 최근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상위 대기업 지원 누적 현황 >

순위	기업명	국가연구비
1	한화	4,861억원
2	현대자동차	2,560억원
3	삼성SDS	2,426억원
4	LIG넥스원	2,265억원
5	효성	1,353억원
6	두산중공업	1,298억원
7	삼성전자	1,251억원
8	포스코	878억원
9	삼성테크윈	576억원
10	LG전자	492억원
11	대우조선해양	472억원
12	두산DST	245억원
13	두산인프라코어	221억원
14	현대중공업	220억원
15	SK에너지	219억원
16	현대로템	210억원
17	삼성전기	122억원
18	코오롱	101억원